

‘광주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215억 배상 판결 공군비행장 이전 가속도 붙나

군당국 “이전할 곳 없다” 입장 고수...마찰 예고

법원이 광주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20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소송진행 등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번 판결로 광주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공군비행장 이전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됐지만, 군당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재웅)는 18일 국모(41)씨 등 광주 광산구 주민 1만3천9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215억6천44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공항의 공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원고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겪었다”며 “소음도가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의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소음도 80웨클 이상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1명당 손해배상액을 매달 3만원(80~89웨클), 4만5천원(90~94웨클), 6만원(95~99웨클), 7만5천원(100웨클 이상) 등으로 산정해 주민들의 거주기간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광주공항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급물

살을 타는 한편, 한동안 잠잠했던 공군비행장 이전에 대한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공항 소음 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광주 광산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비행장의 조속한 이전과 보상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주민들의 청력손실과 수면방해, 학습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며 “공군비행장을 당장 이전하고 소음 피해 보상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당국은 현재로서는 공군비행장을 대체할 곳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

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공항 이전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해 6~11월 ‘광주기지 이전 타당성 및 민원해소 방안 검토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결과 무안군이 대체지로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무안군이 용역 결과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용역조사 결과 무안이 광주 공군비행장의 대체지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무안군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마땅한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간 5·18유족회와 부상자회 회원들이 18일 오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도중 의사 등 집기들을 뒤엎으며 별관원형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

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청별관 다음달 철거

추진단 법적 대응 방침...5월단체 회견장 난입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18일 옛 도청 별관 철거 반대 농성을 재개한 5·18유족회, 5·18 부상자회 등 5월 단체들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병훈 추진단장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공사를 늦출 형편이 안돼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공사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단장은 “새롭게 농성을 시작한 유족회와 부상자회 등을 상대로 민사상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과 형사상으로 필요한 고발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행정대집행 등 행정적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청 별관 해체를 반대하는 공대위 측과 많은 대화를 가졌고 중재에 나선 박주선 의원과 중재안을 놓고 협상해왔다”며 “광주시민 전체를 위한 일인 만큼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19일부터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이달말께 옛 전남도의회 건물부터 철거할 계획이다. 옛 전남도청 별관 건물은 상징조형물 제작을 위해 실측 작업을 거쳐 3월 중순께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오는 2012년 개관 예정인 문화전당의 운영콘텐츠 보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단장은 “올해는 전당 건립 후 운영에 필요한 내부 5개원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야간 공사를 강행해서라도 2012년 개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민주평화교류원과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지식문화원 등 5개원을 중심으로 전당 내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올해부터 본격 개발한다.

특히 ‘수요자와 함께하는 전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가 문화콘텐츠 발굴 및 기획,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라비레트 등 해외 협력을 통한 어린이지식문화원의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문화교육 콘텐츠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영국 테이트모던 등 국제적 복합문화시설과의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철거반대 농성에 돌입한 5·18유족회와 부상자회 회원 20여명이 나타나 ‘도청별관 철거반대’와 이병훈 추진단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추진단 관계자 등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학력 미달 제로’ 전북 임실 알고보니 성적 조작

“성적 부풀려 재기입”

지난 16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본보 2월 18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전북 임실지역의 성적이 일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과부에서 시험 평가 결과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일선 교육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8일 일선교육청과 지역 교육단체 등에 따르면 이 지역 초등학교 6학년

생의 사회, 과학, 영어 3개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사회와 과학 각각 6명, 영어 2명의 미달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어 과목에서는 원래 발표(2명)보다 5명이 많은 7명, 수학에서는 원래 발표(1명)보다 2명이 많은 3명의 학력미달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실지역 초등생의 과목별 미달생 비율은 당초 발표된 영어·사회·과학 0%, 국어 0.8%, 수학 0.4%에서 사회·과학 각 2.4%, 국어 2.8%, 수학 1.2%, 영어 0.8%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임실지역 일부 교육단체

들은 “일선 학교들이 성적을 교육청에 보고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0%로 조작,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성적이 입력된 ‘엑셀 프로그램’에 허위로 숫자를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교육청은 이에 대해 “통계 작성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전체 응시학생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임실지역은 초등학교 6학년생 254명 가운데 240명이 이번 시험을 봤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다.

박진표기자 lucky·연습스

1달러=1,468원
금1돈=20만원

국내의 약재에 환율이 50여일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20만원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2.50원 상승한 1,46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7거래일간 87.00원 급등하면서 지난해 12월 5일 1,475.50원 이후 두 달반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순금 한 돈의 소매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20만원을 돌파했다. 이날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에 따르면 순금(24K) 한 돈(3.75g)의 도매 시세는 18만8천100원로, 소매가격은 20만5천원을 기록했다.

국내 금값이 급등한 것은 국제 금시세의 급등과 함께 최근 환율이 1천400원대로 치솟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장필수기자 bungy@



CATS

한국어로 만나는
최초의 '캣츠' 한국공연
2009년 4월 광주에서
그 역사적인 막이 오른다!

2009. 4. 21 (화) ~ 26일 (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 062) 220-0541 | 1388-0766
티켓구매처 | 티켓이루 옥션티켓 티켓링크